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칠언율시(七言律詩)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해촌잡흥
海村雜興

가을 빈 터 쓸쓸히 다듬이 소리 차가운데 秋墟寥落動寒砧
먼 기슭엔 우수수 단풍나무 숲이로다. 遠岸蕭蕭楓樹林
산기슭의 작은 고을 유난히 비가 많고 小邑依山雨偏足
바다 곁 외론 마을 날씨 늘상 우중충해. 孤村近海天常陰
찬 시내서 시골 아이 작살로 자라 잡고 野童擇鱉溪潭冷
갈대 숲 깊은 곳서 강 나그넨 오리 쏘네. 江客射鳧蒲葦深
지는 해에 한 쌍 백학 훨훨 날아가니 落日翩翩雙白鶴
사람 등져 떠나면서 부러 슬픈 소리 내네. 背人飛去故哀吟

꿈속에 송경(松京)을 가서 짓다
夢行松京有作

번화한 자취 없고 산하만 남았거니 繁華無跡有山河
눈길 닿는 것들마다 감개함 어떠하리. 觸目其如感慨何
태액지(太液池)의 마른 연잎 가을 빛 시들하고 太液枯荷秋色老
대궐 동산 찬 잎에는 빗소리만 시끄럽다. 禁林寒葉雨聲多
궁궐의 까마귀는 금반(金盤) 이슬 즐겨 쪼고 宮烏愛啄金盤露
들새는 옥수가(玉樹歌)를 잘도 노래하누나. 野鳥能吟玉樹歌
여윈 말로 홀로 왔다 다시 홀로 가노니 瘦馬獨來還獨去
지는 해 우리 낙타 비추임 못 보겠네. 不堪斜日照銅駝

이 달 의 시

바다 상어를 위한 변명

청하 권 대 욱

바다 상어는 외롭다
정말 아프다
생존을 위한 본능 주체하지 못하는 탐욕의 존재
컴컴한 세상의 바닥에서
번득이는 눈빛으로
잠시 평온을 위한 여유를 망각하고
산호초의 평원에서 상실되었던 야성이
포만 겨운 날을 찾았을 뿐이다
여기 배고픈 존재가 갈구한 풍요를 위하여
묽은 피를 뿌렸던 바다에도
생명의 시작과 역동의 날이 머물고
재생을 기약하는 소멸이 있었기에
죽음의 사자가 육신을 부둥켜안아도
황홀한 봄이 찾아온다
외로운 삶 하나는 떳떳하게 울부짖고 있다
아프지 말아야 하는 이 바다에서
그냥 살아온 상어의 절규가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태초에서부터 그렇게 들려온다
포효하는 격랑,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이 바다의 자양분으로 부활하는 날까지
바다 상어는 혼자 아프다.

벽산 권경호 서예가展

만오연서회(회장 조팔재)의 주최로 지난 5월 25일 오전 11시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벽산 권경호 서예가의 작품, 병풍, 족자 등 다수가 출품된 가운데 서예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 조팔재 회장의 인사와 함인석 경북대총장, 박남희 평생교육원장의 각 축사가 있었다.

벽산 서예가는 대한민국 서예미술공모대전에 특선과 입선,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입선하였으며, 대한민국 서예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중진작가이다.

〈권혁세 기자〉

벽산 권경호 작가(서예가)

우강 권이혁장관 에세이

고전

우리들의 인생에서 고전(古典)이 진정한 스승이 되 갈 길을 알려준다는 데 대하여는 사족을 붙일 나위가 없다. 나는 공자(孔子)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는 바가 많은데, 특히 다음과 같은 말씀은 인상적이다. "보통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옛적 성인군자가 한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의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하는 것뿐이지. 나의 창작은 아니다. 과거에 상(商)나라의 가로(家老)였던 노팽(老彭)도 그렇게 했다고 듣고 있다. 나는 노팽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이 하고 싶다."

고전이라면 <논어>와 같은 조금 딱딱하고 교훈적인 것을 말하는 것같이 해석되기 쉽지만. 옛 선현(先賢)들이 남긴 문학이나 그 밖의 작품도 값진 고전이라고 믿는다. 나의 경우 대학 예과 시절에 읽었던 <세계문학전집> 중에서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는 명작들이 많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톨스토이의 <부활(復活)>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작품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춘향전(春香傳)>이라고 해도 이의가 없을 줄로 안다. 여기서는 이들에 관하여 나의 마음에 드는 부분을 적어본다.

〈논어〉

2천 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읽어 내려온 고전인 <논어(論語)>에 나오는 글들은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고 인용되고 있다. 그만큼 고전은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공자가 자기의 말이 자신의 오리지널이 아니고 옛적의 말들을 현재에 맞도록 바꾼 것이라고 한 것은 음미하고 또 음미할 만한 이야기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전에 나오는 말들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 좌우명에 따라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유학(儒學)이나 <논어>에 대한 조예가 깊지 못하지만 중학교 시절에 배운 <논어>의 일부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본다. 그것은 '知之者 不如 好之者, 好之者 不如 樂之者'라는 말씀이다.

풀이하자면 '알고 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즉 일을 즐기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이다.

알고 있고 좋아한들 즐길 정도가 아니면 진짜로 일을 한다고 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나는 이 격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용한다. 특히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잘 사용한다.

일을 좋아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은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척하는 일이라면 거기에서 무엇이 얻어지겠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좋아하도록 애써야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일을 즐기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몸을 던져 일하기를 즐기게 된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없는 것이다.

언제나 각종 시상식에서 느끼는 소감의 하나는 수상자가 예외 없이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훌륭한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치고 연구를 즐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학자나 연구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통되어 있는 사실이다. 연구를 즐기지 못하는 학자를 학자라고 할 수 없다. 일을 즐기지 못하는 경영자가 성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부활〉

<부활>이 톨스토이(Lev Nikolaevich Tolstoi, 1828~1910)의 3대 명작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주지되어 있는 일이다. <부활>은 그의 나이 71세 때인 1899년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그의 사상·종교·예술의 모든 것이 니타나 있고 젊은 우리들에게 소위 '톨스토이즘'이라는 새로운 믿음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래서 <부활>이 장편작품이기는 하지만 몇 번이고 읽게 되었던 것이다.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사건의 주인공 '로잘리아'는 핀란드인 별장 경비원의 딸인데 그의 부친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다. 부친은 딸이 고아가 될 것이 걱정스러워 별장 주인인 부유한 부인에게 딸을 보살펴줄 것을 부탁하고 사망했다.

별장 주인은 '로잘리아'를 맡아 양녀 겸 하녀로 부렸다. 그녀는 16세 때 부인의 친척으로서 대학을 갓 나온 청년에게 농락당해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부인은 '로잘리아'를 쫓아냈다. '로잘리아'는 청년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 '로잘리아'는 태어난 아기를 양육원에 보내고 매춘부로 전락했다. 어느 날 술 취한 손님에게서 백 루블을 훔쳤다가 체포되어 4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이 재판에 마침 예전의 그 청년이 배심원으로 참석했다가 윤락녀로 전락한 '로잘리아'를 보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결혼식을 앞두고 '로잘리아'는 발진티푸스에 걸려 사망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친지인 '코니'가 페테르부르크 지방재판소의 검사로 재직하던 중 경험했던 이야기를 톨스토이에게 들려준 내용이다.

톨스토이는 자신도 젊었을 때 고모 집에서 하녀를 유혹했다가 버린 적이 있고, 그 때문에 그 하녀는 일생을 망쳐버린 어두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 톨스토이는 '코니'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코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집필했으나 <부활>로 개칭했다.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1889년이고 발표된 것이 1899년이었으니,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 10년이 걸린 셈이다.

나는 이 작품을 통해 톨스토이에게 일종의 신비감을 느꼈다.

톨스토이는 1828년에 백작 가문의 4남으로 태어났으나 1830년 모친이 사망하고 1837년 부친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숙모 집에 맡겨졌고 1844년 16세 때 카산 대학 동양어학과에 입학하여 아랍어 터키어를 전공했다. 1년 후에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진보적 지주로서 새로운 농장을 경영하다가, 1949년 20세 때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이 무렵 농민 생활개혁의 실패 등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주색과 도박 등 방탕한 생활을 했다.

1851년 포병대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852년 24세 때 처녀작 <유년시절>을 발표하여 재능을 인정받았다. 1854년 26세 때에는 장교로 승진하여 크리미아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톨스토이는 경험을 통해 많은 작품을 집필했는데, 1869년 41세 때에는 <전쟁과 평화>를 발표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작품을 내놓았다.

그는 1862년에 결혼한 후 더욱 문학에 정진하였으며. 그가 쓴 3대 장편 <전쟁과 평화>(1864~69년) <안나 카레니나>(1875~78) <부활>(1899년)은 오늘날에도 세계인들이 애독하고 있다.

나도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이 3대 명작을 정독했는데 그럴수록 톨스토이가 위대한 작가·사상가임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등산하면서 역사 속으로

대둔산(大屯山)

향촌 권 오 창

호남적(湖南的)인 소금강(小金剛)이라고 이름난 대둔산(大屯山)으로 가본다.

대둔산은 충남 금산군과 논산군 그리고 전북 완주군과의 경계에 위치한 명산이다. 이산은 경치가 아름다워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산록에 대둔산 온천관광호텔이 있고 산정 가까이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광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보로 제일 높은 마천대(고 878m)에 오르는 길을 단축할 수 있다.

대둔산의 4계절은 아름답다 봄철에는 암벽사이로 진달래가 만개하는 장관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계곡의 석천의 물은 맑고 깨끗한 옥구슬 같은 물을 쏟아낸다.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펼쳐진다.

특히 산 주능선의 겨울 눈꽃은 절경을 이룬다.

이제 정상에 오르는 등산로를 선택하여 보자.

등산코스는 정상을 기준으로 산을 넘어가는 코스와 산정에서 올라온 코스로 되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하더라도 소요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충분하다.

많이 애용되는 등산 시발점은 대둔산온천관광호텔 후편 매표소에서 시발한다.

여기가 금강계곡 입구이다.

매표소를 거쳐 계곡 석천 오솔길을 따라 동학혁명 전적비 제단을 지나고 동심암 아래 휴게소에서 금강구름다리를 향하여 곧장 가파른 바위계곡길을 오른다.

금강구름다리를 건너 약수정 휴게소에서 삼선계단을 올라 최고봉인 마천대를 향하여 굴곡진 계단과 돌길을 따라 15m 석탑이 우뚝선 마천대에 도달할 수 있다.

앞서 지나온 동학혁명전적비를 살펴보자.

일부 동학혁명군이 대둔산에서 일본군과 3개월간의 치열한 항전 끝에 전원이 장열히 숨을 거둔 역사적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이곳에 비를 세운 곳이다.

이미 전봉준과 김재남 장군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동학점주급 25명이 이곳 대둔산 바위 동굴 속에서 숨어서 일본군에 대항하다가 세부족으로 모두 순명하였는데 당시 소년 1명만이 생존자가 있었다고 전한다.

때는 1895년 2월 18일이었다.

또한 당시 이곳에서 동학 점주 김석순은 일본군에게 포로되기를 거부하고 갓난 아기를 안고 바위 절벽에서 함께 투신 자살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대둔산의 명물은 금강구름다리와 삼성계단이다.

금강구름다리는 현수교로서 상판은 철판이고 길이는 50m에 달한다.

높이가 200m가 되는 양석산 사이에 걸려 있고 교각 난간 높이는 8m 폭 2m 정도이다.

이 다리를 건널 때에는 약간 흔들리는 편이며 아슬아슬한 심리적 동요를 가져오고 아찔한 스릴을 맛볼 수 있다.

다리 중간에서서 암벽과 석산과 노송의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사진찍는데 더 없는 좋은 배경이 된다.

이 구름다리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1985. 9. 27 시공 완료하여 임금바위와 임석대를 연결한 다리이다.

노약자는 다리를 건너는데 심리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난간을 붙잡고 앞만 보고 건너야 한다.

다리밑이나 높은 바위산을 바라보면 현기증이 나기 일수이니 주의를 요한다. 공포증으로 인하여 발이 붙어서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이 도움을 꼭 청하여야 한다.

금강구름다리를 지나면 삼선철계단에 이른다.

삼선철계단은 사다리 모양으로 제작되어 임석대에 걸쳐있다. 철계단 자체 하중은 11톤, 계단 폭 1m, 길이는 25m나 된다. 각도는 80° 각도임으로 노약자는 위험하다.

철계단을 비켜가는 길이 별도로 있으니 선택적으로 오르면 된다.

물론 눈이 올 때 기상이 나쁠 때에는 통제를 도립공원측에서 하고 있다.

철계단을 오를 때에에는 양손으로 난간 손잡이를 꽉 잡고 그 전방만 주시하고 걸음을 띄어 놓아야 한다. 현기증과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방 지호지간에는 삐죽 삐죽한 바위가 열지어 솟아 있고 산밑을 바라볼 때에는 아스라이 도로가 계곡을 따라 마을 길 같이 구불 구불 지나고 있으며 흰 구름과 안개는 산록을 가리워서 천상에 선선경을 느리게 한다. 정말 황홀하다.

대둔산 주능선의 암봉들은 많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고려말에 한 재상이 이성계의 역성혁명으로 나라가 망하자 이를 비관하고 한탄하여 딸 셋을 데리고 이곳에 은거하다가 선인되어 이곳에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구전되어 오고 있다.

또 다른 등산코스는 용문곡 매표소에서 신선암을 거쳐 칠성봉전망대 칠성봉 아래로 정상에 올라 마천대에 이르러서 태고사를 지나 행정리로 빠진다. 산을 넘어가는 코스이다.

용문곡 매표소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온천개발지구와 진산 자연휴양림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

고속도로 추부IC로 가는 고객에는 임진왜란 때에 3대 전승지로 알려진 이치전적지에 권율장군 전승비가 세워져 있다.

권율장군은 1천5백명의 군사로 금산을 점령한 왜군이 호남쪽으로 진격하여 온다는 첩보를 가지고 동복현감 황진과 함께 이치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곰치에서 전승한 왜의 번대주장 소조천(小早川)이 조선의 관군을 얕잡아보고 진격하여 왔으나 전투작전에 투철하였던 권율장군은 왜군을 맞아 대승을 거두었고 육지에서는 첫 승리를 한 곳이다.

하산북에서 등산하는 코스는 안심사를 지나 주능선을 주파하고 마천대를 거쳐 낙조산장을 지나 석천암으로 넘어간다.

이 코스에는 군주폭포와 수락폭포와 6·25사변 때에 참전한 경찰 승전탑을 거쳐 충남 논산시로 갈 수 있다.

대둔산의 접근은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지에서 진입하기가 쉬워서 40여분이면 승용차로 닿을 수 있고, 시외 버스로서는 1시간 전후하여 대둔산에 접할 수 있다.

완주 대둔산 축제는 매년 10월말 경에 개최됨으로 이때를 맞추는 것도 좋다.